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의학기술수련원
배 소 영

말 - 언어 발달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게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아동이 해부학적으로 정상적 뇌, 조음 관련 기관, 감각-운동기관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언어적 자극 속에 노출되어야 하고, 또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을 위해 말 또는 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Fletcher 1973; Kent 1976; Kent 1984; Spreen et al. 1984; Vygotsky 1978). 언어 발달의 기간도 매우 길어 기본적 말의 틀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 완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언어에 가까운 문법이나 조음 능력을 가지는 데에는 또 여러 해가 더 필요하다(Bloom 1970; Bloom 1991; Bloom and Lahey 1978; Bruner 1983; Pinker 1984; Radford 1990).

말을 함에 있어, 우리말에 적절한 음소들을 결합하여 의미있는 낱말,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언어학적 견지에서 보면 한 발화에는 운율, 말소리, 구문 구조, 문법형태소, 의미, 화용의 제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말-운동(motor speech) 조절 능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 일련의 조음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Hawkins 1984).

1. 언어발달이론

언어 발달에 관한 이론은 강조하는 입장이나 관련학문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말-운동 입장에서 세마 이론(Schema theory)이 있다(Kent 1984). 아동 언어 입장에서 주로 문법요소의 획득과 관련한 것들이 많은데 Functional categories, Parameter setting, Paradigm building, Maturation theory 등이 그 예이다(Hyams 1986; Piner 1984; Radford 1990; Wexl-

er & Culicover 1980). 인지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전체 인지구조를 획득하는 한 과정으로 보거나(Piaget 1954),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기도 한다(Bruner 1983). Vygotsky처럼 언어 자체를 사회화의 주요 도구로 생각하는 이론도 있고, MacWhinney처럼 반복 경험에 의한 기능적 강화를 강조하는 이론도 있다(Rice & Schiefelbusch 1989).

언어 발달 이론은 기술적인 것(descriptive)과 설명적인(explanatory)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한 차원에서는 단계(stage) 모델인가 아니면 과정(process) 중시의 모델인가로 나누기도 한다. 언어발달 과정을 풀어내는 설명적인 이론일수록 더 완벽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완벽하게 아동의 말-언어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없다. 피아제처럼 단계를 강조하는 모델은 세마 이론과 같은 과정 중시 모델과 대조된다. 이 양자의 장단점은 적절히 응용되어야 한다.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이란 한국어라는 문화적 상황에서 한국말과 글을 획득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 말의 특징이나 문화적 특징은 언어 발달에서 주요 요인이 된다(Schieffelin & Ochs 1986). 구미의 많은 연구들을 한국 아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언어장애 아동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더더욱 우리말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발달과 대조되는 특징을 우리말 환경에서 찾아내야 한다. 영어권 자료의 단순한 번역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한국어에 대한 최근의 아동언어 연구들(Au, Dapretto, & Song 1994; Choi & Bowerman 1991; Clancy 1989; Kim, in press, Pae 1993)은 언어 보편성과 언어 특정성(language specificity)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어특정성이나 언어보편성은 우리말 발달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영역, 어떤 연

령을 태하였으나 따라 양쪽의 주장은 모두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언어를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또 비슷한 생물학적 기초 위에서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어에 독특한 특징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언어특정성을 특정 연령대에 많이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특정성이 나타나는가는 더 연구해야 할 일이지만 언어가 한 특정 사회에서 임의적으로 쓰이는 상징매체임을 고려할 때 우리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2. 한국어의 특징과 언어 발달

낱말이라는 용어 하나에 대해서도 국어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어의 구조를 시원스럽게 정리할 수는 없겠으나(임흥빈 1985) 우리말이 가진 구조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요약하고자 한다. 말소리 면에서 우리말에는 파열음이 기본음, 긴장음, 기식음으로 분화되어 있다. 파열과 마찰의 특징을 함께 보이는 파찰음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위치별로 볼 때 우리말에서는 다섯 부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두 입술, 잇몸, 경구개, 연구개, 성문. 방법상으로 볼 때 파열, 마찰, 파찰, 비음, 측음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음절 구조면에서 볼 때 끝소리(ㅁ, ㅂ, ㄴ, ㄷ, ㄹ, ㄱ, ㅇ)의 수가 일곱 가지로 영어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낱말 중간과 낱말끝의 위치에서 자유로이 이용되고 음절 경계가 뚜렷이 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구문 구조 면에서 우리말은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유지할 수 있다. 주어가 두개 이상 나타나는 현상도 특징적이다. 영어에서처럼 피동문, 의문문, 부정문 등을 만들기 위해 단어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하거나 무의미 단어가 첨가되어야 하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나 하는 식의 규칙적 변화가 없으며 성이나 수의 일치와 같은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구의 측면에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등이 두드러지고 낱말간 연결이 연결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절의 경우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 부사절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며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이 사용된다. 이때 문법형태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법형태소 면에서의 특징은 우리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의 대표적 특징은 문법형태소의 활약에서 찾을 수 있다. 조사나 어미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한국어로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접사의 역

할도 막중하다.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들은 대화자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구문 구조 뿐 아니라 문법형태소들의 습득은 아동의 말을 좀 더 어른스럽게 느끼게 한다.

의미면에서 우리말에 독특한 낱말들이 있음을 들 수 있다(예: 김치).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보다 사람과 관련된 낱말들이 대화상에서 많이 쓰인다(예: 고모, 이모, 삼촌, 형, 누나). 동사의 경우 방향, 장소, 원인 등을 나타내는 것들을 하나의 낱말로 표현하는 것이 영어의 예와 다르다(예: 빼다, 넣다, 붙이다). 낱말이 복합되어 쓰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다'의 경우 명사와 결합하여 우리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신경심리적 성숙과 언어 발달

태생기에 이미 태아는 신경심리적 준비를 완성한다(Nowakowski 1987). 생후 50주 이전의 영아에서 좌뇌 활성도를 보고하거나 말소리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아주 일찍부터 아기가 특정언어를 배울 준비가 되어있고 그 언어에 예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도는 태어나서 일 년동안 급격히 변화하나 이후 수년 동안에도 점진적 변화 과정을 거친다. 생후 1~3개월 경의 cooing시기는 limbic cingulate structures가 발성에 대한 조절을 담당하고, 생후 6~9개월까지에는 발성에 대한 cortical control 양이 적다. 이 이후에야 말(speech)을 위한 신경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Kent 1984)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생후 2년 정도까지에는 리듬있고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말 운동의 준비가 이루어진다. 6개월 경 두뇌 언어영역내 피질의 내층 발달이 절정에 달하는 데 용알이의 활성화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8~9개월 경 corticocortical connections이 설정되고 어른과 비슷한 활동을 보이는데 이는 아이가 최초로 말에 대한 언어적 이해를 보게 되는 시기와 비슷하다. 15개월 경 hippocampus가 완전 성숙되는데 이는 기억채널을 줌으로써 아이에게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4개월 경 Broca's area의 dentritic density가 증가하고 우뇌의 그것과 비슷하게 되는데 2세가 많은 아이의 경우 폭발적으로 언어를 획득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48개월 경에는 두뇌 metabolism의 전반적 수준이 절정에 달하고 언어관련 피질의 외부 세 개층이 발달한다. 이 시기 한 나라 말의 기본 구문구조를 말을 통해 습득해가는 아이의 능력

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preen et al.(1984)를 참고하면 2차 감각 운동 영역과 대뇌 우세화가 생후 5년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parietal, temporal, premotor regions을 관련시킨다. 이는 우리말의 기본 구문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와 비슷하다. 5~8년의 경우 두정엽 영역의 관련이 깊는데 특히 읽기 쓰기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임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시기 난독증을 언어발달장애와 연결시키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Catts 1989; Kamhi & Catts 1989).

아동은 음소나 문장을 획득해가는데 있어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처음에는 마치 완벽한 듯이 말하다 오히려 퇴행하는 현상을 보인 후 습득의 단계로 나아간다. 조음 기관의 우연한 사용은 언어능력의 완성과 더불어 획득의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ㅅ/을 정확하게 말하다 탈락시키거나, 긴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말하는 것이 그 예이다. 말운동의 경우 아동이 자음, 모음을 순서있게 나열하는 것은 3~4세 경에 할 수 있지만 성인과 같은 동시조음(coarticulation)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11~1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Kent 1984). 이런 말운동에는 신경심리적 성숙과 연습이 대비될 수 있다고 본다. 말운동 기제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조음기관 기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함을 보여준다(Robbins & Klee 1987).

최근에는 아동언어학적 이론과 신경성숙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Borca's area와 POT area(the junction of the parietal, temporal, and occipital lobes) 및 arcuate fasciculus의 성숙을 myelination 과정과 언어습득의 단계로 직접 연결하려는 연구가 있다(Wakefield & Wilcox 1995). 이 연구는 구문 구조, 의미관계의 습득, 기능어의 적극적 획득이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아기 언어발달 과정을 신경성숙과 연결시키고 있다. Broca 영역에서 나오는 신경 성숙이 먼저, POT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였는데 아직 이론을 정립하기에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아동의 말-언어발달 과정을 그 기본이 완성되는 학령전기를 중심으로 실제 한국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우리말 발달자료는 몇 명의 어린이의 자발적 발화를

중단관찰한 것에서부터 수십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실험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이승복 1994; 이인섭 1986; 이승환 & 배소영 1988; 조명환 1982; 주영희 1983). 또한 각 연구들의 목적에 따라 한국어의 제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왔는데 여기에는 말소리 또는 음운변동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있다(권경안, 이연섭, 손미령 1979; 김영태 1992; 김영태 & 신문자 1992; 배소영 1987; 엄정희 1986). 일련의 연구들은 구문 구조 또는 의미의 측면이나 이야기발달에서 우리말 발달을 다루어놓고 있다(김수영 1995; 배소영 & 이승환 1996; 조영화 1991; Clancy 1989; Hahn 1981; Kim 1989).

1. 한국어 발달 이정표(Korean language development index)

배소영(1995)를 참고로 구문 구조, 의미, 문법형태소, 화용, 말소리의 다섯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이야기 영역에서는 아동의 언어에 대한 종합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언어 산출에 중점을 둔 이 표는 말-언어장애 유무를 파악하는 스크리닝 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각 항목이 뜻하는 바에 대해 검사자가 과잉 또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영역별 자세한 설명은 배소영 1995를 참조).

아이가 첫날말 즉 어떤 대상에 관해 어떤 말소리군을 일관되게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일 년 여의 기간이 필요하다. 말운동측면에서 볼 때 여러 변화 과정을 거친다. cooing, reduplicated babbling, advanced babbling의 단계로 나아간다. 모음같은 또는 자음같은 소리를 우연히 내다가 CV 구조와 비슷한 소리를 내고, CV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간다.

첫날말이 나오면서 아이는 언어라는 도구가 가지는 막강한 표현의 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날말의 사용은 날말이외의 제스처어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은 언어 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도 활발히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다. 특히 이때 동시집중, 반복 루틴 속의 활동들은 날말, 또는 발화 획득의 촉진적 역할을 한다. 이 시기 연구들은 어머니의 언어촉진 역할에 대한 증거들을 보이고 있다.

첫날말기에서부터 아이의 언어 획득 전략(strategies)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첫날말기를 거처가면서 날말 획득에서도 다양한 개인차를 볼 수 있다. 참조형 아

Table 1. 한국어 발달 이정표(Korean Language Development Index)배소영 1995

영역 나이	말소리	의미	구문구조	문법형태소	화용	이야기
0	옹알이 (m, n, p', t', , k', b, d, g)					큰소리, 과장된소리에 가끔반응
1		명사 이거 뭐 동사(뛰, 가, 먹어, 앉아)	한낱말+의양		몸짓과소리로 의도표현 이름하기 부르기 대답하기 모방하기 요구하기	몰어뜯거나 찢는다. 찾기도 한다.
2	ㄹ ㅂ ㅃ ㅅ ㅈ ㅊ ㅋ	동사 (끼워, 빼, 떼, 까, 부사(더, 많이, 또) 누구 어디	두낱말조합 (행위자, 행위, 수식, 실체, 지시, 장소, 도구, 의문어, 부정 개념 중심)	종결어미 (-야, -자) 의존 명사(-거) 주격조사(-가) 주제보조사(-는) 보조용언(-줘)	자기중심적	간단한 내용 질문에 대담 친숙한이야기 가능
3	ㅍ ㅌ ㅋ ㅎ	관계어 (크다-작다) 왜 어떻게 이렇게	세낱말조합 한국어기본구조 (주어+서술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주어+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연결어미(-고) 종결어미(다양)	자기주장과 반응 대체로적절	처음본이야기 산출시도 명사 나열 서술어 나열
4	ㅍ ㅌ ㅋ 음절끝소리들 ㄹ ㄴ ㄷ ㅂ ㅃ ㅅ ㅈ ㅊ ㅋ ㅇ	길다-짧다 언제	구확대활발 (동사, 형용사포함 명사구, 다른두동사사이 다른낱말삽입)	높임(-요) 의존명사(-수) 목적격조사(-를) 인용(-고) 관형사형+과거 (-은/ㄴ) 형태소수급증 (연결어미다양)	탈자기중심	단순나열이야기 기본구조갖춤 언어 구조 다양화
5	ㅅ* ㅆ*	접속부사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넓다-좁다)	피동(참고: -지다) 사동(-게하다) 접문 다양한절삽입 (명사절제외)			사건포함이야기 기본구조갖춤

1. 이 자료들은 각 나이별 자료에서 나이별 특징이 드러나고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75%이상의 완성도를 보일 때를 기준으로 그 연령대에 습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2. *75% 완성도에 이르지 못한 것.

이가 있는 가 하면 사회적 표현의 아이가 있고, 분석형 아이가 있는 가 하면 전체형 아이도 있다. 어떤 아이들은 낱말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가 하면 많은 아이들이 낱말폭발의 기간을 보이기도 한다.

두돌을 지나면서 내용어를 중심으로 낱말조합을 하고 우리말에 많은 문법형태소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특히 행위자, 행위, 대상, 지시, 실체, 존재 및 비존재, 부정 및 거부, 장소의 개념들은 이 시기에 활발히 탐색하는 의미범주들이다. 내용어들을 결합해서 이제 제법 문장다운 말을 하기도 하지만 두돌 아이들의 문장은 아직 형태소 면에서 볼 때 시작단계로 본다. 두돌 아이들은 아직 대화시 자기주장의 성격이 강하고 서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대화하기보다 서로의 주제를 나름대로 이야기한다. 특히 아직 here and now의 원칙을 주로 적용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는 않는다.

세 네돌박이들은 우리말의 기본구문구조를 획득하고, 문법형태소 영역도 활발히 탐색해 나간다. 대화의 주제도 점차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간단한 논리를 포함한 것들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의 산출이 활발하며 관형절이 완성되어간다. '거'는 관형절의 완성모습을 엿보게 하며, '고, 는데, 서'의 연결어미는 대화나 이야기 산출에서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문법형태소의 하나이다. 인용절, 부사절도 보인다. 하지만 성인의 문장에서와 같은 완벽한 복합문을 찾기는 어렵다. 이때에는 자신과 친숙한 이야기 뿐 아니라 새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구조의 기본을 획득해 간다.

의미 면에서 볼 때 자신과 친숙한 사물, 사람에서부터 다양한 범주의 명사, 서술어를 획득한다. 정의하기의 측면에서 볼 때 학령 전기는 자신의 경험이나 기능으로 낱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기능면에서 볼 때 요구하기, 거부하기, 서술하기를 중심으로 낱말 조합이 확장되며 4세가 되면 자기주장과 반응을 적절히 할 수 있게 된다.

말운동 측면에서 볼 때, 생후 3~4년까지에는 우리말 음소의 기본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음운변동을 보인다. 우선 낱말구조를 간략화하거나, 목표음소를 탈락하거나, 대체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1~2돌 때에는 우리말 모음의 활발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자음과 관련해서는 긴장음화, 대기음화, 앞으로 가기, 정지음화, 과도음화 등의 특징이 보인다. 학령 전기 유아들의 말속도는 성인의 것에 비해 느리며 특히 3~4년 동안에는 정상적 비유창

성의 특징도 종종 보인다.

2. 창의적 실수들

정상아이가 보이는 실수들은 어른의 미소를 끌어내고 때로는 창의적인 모습에 부모들이 아이키우는 보람을 실감나게 느끼기도 한다. 이런 언어적 실수들은 운동, 인지, 정서발달상의 제한된 능력을 함께 반영한다. 어린아이들은 말소리 면에서의 제한이 두드러져 어른들이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정상아이들의 언어적 실수는 언어장애아동에서처럼 많이 또 지속적으로 오래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상언어발달에서 중요한 한 특징이 되고 발달적 차이를 볼 수 있으므로 언어진단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본다.

두 살 이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제한된 조음능력으로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말소리상의 생략, 첨가, 왜곡이 두드러진다. 1세 아동의 실수는 의미적 측면에서도 관찰된다. 사과를 보고 *이바(배)*라고 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으로 대처하는 실수를 종종 볼 수 있다. 1~2살 때에 *엄어*를 /*어머*/라고 하지 않고 /*엄어*/, *안아*를 /*안나*/로, *아빠*를 /*아빠*/로 하거나 *비*를 /*피*/로, *사과*를 /*아카*/로 하는 등 낱말 중 음절 끝소리 첨가나 대기음화 현상을 보인다. 1~2살 때에는 동문서답의 대답인 경우가 많고 아동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의사소통상 막힘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2세에 가서도 마찰음, 유음이나 끝소리의 탈락이 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2세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가라는 주격조사의 과잉일반화현상을 보인다. 우리말에서 문법형태소의 중요성을 일차적으로 드러내는 발달준거를 이 주격조사의 창의적 실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2, 3세 아동들은 단어결합상에서 실수를 보인다. 관형사 '이'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예: *이거 신 쥐, 이거 꽃 예빠*). 명사류의 창의적 결합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한다(예: *우유를 보고 {아기 밥}*이라고 하는 경우).

3~4살 아이들이 *돈다*를 /*돌란다*/ *모르*고를 /*몰르*고/로 대처하는 등 한국어 음운론에 예민한 아이들의 창의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3~4살 아이의 음운론적 특징은 문법형태소 탐색과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3세로 가면 문법형태소의 제 형태를 혼동하는 실수를 많이 볼 수 있다(예: *씻으는 거/씻는 거, 안 되은다/안 된다, 잡*

오자/잡자, 놀으구/놀구, 끼은 거/끼는 거, 안저저/앉혀져, 신어줘/신겨줘, 이거 해구/이거 하구). 2~3살 아동의 경우 부정어와 관련한 실수도 종종 눈에 띈다(예 : 안다 먹었다, 안 공부해). 5세 이후의 실수는 바른 표현을 위한 자기수정, 대용어 사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가끔 목적격조사(예 : 여왕이 빛이 받아가지구, 문이 닫았어), 장소격조사(예 : 방에 잡는데), 매끄럽지 못한 연결어미(나는 깜짝 놀라지도 않아 장난감 같은 거 광하면)를 아주 드물게 관찰할 수 있다.

말-언어 발달과 언어발달장애

아이가 언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제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상태로 있는 것인지 또는 성숙이나 환경의 영향에 의해 점차 완성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Eimas et al. 1971 : Kent 1984 : Wexler & Culicover 1980). 언어습득 이론과 신경성숙이론을 접목한 최근의 연구는 인간의 두뇌와 아동 언어 현상을 좀더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말운동 발달과 언어 발달의 이론을 화용 및 의사소통이라는 더 큰 테두리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 말이나 동시집중에 대한 연구는 아동언어의 특정 영역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인다(Hamson & Nelson 1993 : Tomassello & Farrar 1986). 언어발달 전략이나 개인차에 대한 연구는 언어발달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들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Nelson 1973 : Flecher & Garman 1981).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한 여러 기술이나 단편적인 설명들은 말-언어발달이 아주 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적극적 탐구자로서의 아동이 꽤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언어발달 장애 아동들은 여러 이유로 정상적 말-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들이다(Bloom & Lahey 1978). 이런 아동을 위해 정상 언어발달은 진단/평가(Lund & Duchan 1993) 및 치료/교육(Fey 1986)에서 유용하게 쓰여진다. 진단면에서 볼 때, 언어발달장애의 유무를 판별하거나 특정 하위 영역에서의 각 아동의 강,약점을 파악하게 한다. 개인간, 또 개인내 언어발달 수준에 대한 자세한 파악은 치료/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치료/교육면에서 언어발달은 일반적 안내방향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발달/형태소 획득에 대한 발달과

정을 알려줌으로써 치료/교육에 도움을 준다.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단순언어장애(SLI)의 경우, 발달논리는 언어 치료/교육의 매우 주요한 도구가 된다. 기타 언어발달기에 있는 아동에 나타나는 각 말-언어-청각장애 영역에는 언어발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참고적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기관적 조음장애인 구개파열 아동의 경우 제한된 조음능력이 아동의 전반적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언어이해면에서의 발달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어임상가의 주요한 임무가 된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제한된 음운처리능력이 우리말 문법형태소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청능훈련 및 말표현 훈련을 하기도 한다. 인지적 장애를 지니는 정신지체 아동에게는 철저하게 인지 수준을 고려한 언어 발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성에 문제를 갖는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이나 자폐아동의 경우 사회성 보완을 고려한 의사소통지도가 이루어진다. 말운동에서 문제를 보이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말운동에 대한 아주 세세한 발달 체계가 도움이 된다. 사고, 질병 등에 의한 아동 실어증의 경우 발증전 언어발달 수준이 언어회복에 차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언어발달적 접근이 실어증 자체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치료/교육의 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

References

- 1) 권경안 · 이연섭 · 손미령 : 한국 아동의 음운발달 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79
- 2) 김수영 : 정상아동의 문장이해발달연구. 언어장애 연구. 언어장애연구모임, 1995
- 3) 김영태 : 2~6세 아동의 음운변동에 관한 연구(I) : 생략 및 첨가 변동을 중심으로. 재활과학연구, 10(1) : 49-58, 1992
- 4) 김영태 · 신문자 : 아동의 음운변동에 관한 연구(II). 대치 변동을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1) : 29-51, 1992
- 5) 배소영 : 정상말소리의 발달 I. 아동의 조음장애치료. 한국언어병리학회 편, 1987
- 6) 배소영 · 이승환 :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연구 I. 한국언어병리학회 제 1 회 학술대회집, 1996
- 7) 이승복 : 어린이를 위한 언어 획득과 발달. 정민사, 1994
- 8) 이승환 · 배소영 : 한국 아동의 조사이해발달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1988
- 9) 이인섭 :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 단계별 위상. 교문사, 1986
 - 10) 임홍빈 : 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2 : 86-98, 1988
 - 11) 조명환 :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연구 : 책략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12) 조영화 : 아동의 피동·사동 언어 발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13) 주영희 :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및 사고능력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3
 - 14) Au T K-F, Dapretto M & Song Y : *Input vs. constraints : Early word acquisition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 567-582, 1994*
 - 15) Bloom L : *Language development : Form and function in emerging grammars.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70*
 - 16) Bloom L : *Language development from two to thre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17) Bloom L, Lahey M : *Language development and language disorders. New York : John Wiley, 1978*
 - 18) Bruner J : *Child's talk : Learning to use language. New York : W.W. Norton, 1983*
 - 19) Catts H : *Defining dyslexia as a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Annals of dyslexia 39 : 50-64, 1989*
 - 20) Choi S : *Early acquisition of epistemic meaning in Korean : A study of sentence-ending suffixes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three children. First Language 11 : 93-119, 1991*
 - 21) Choi S, Bowerman M :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Cognition 41 : 83-121, 1991*
 - 22) Clancy PM : *Form and function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wh-ques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 323-347, 1989*
 - 23) Eimas P, Siqueland E, Jusczyk P, Vigorito J : *Speech perception in infants. Science 171 : 303-306, 1971*
 - 24) Fey M :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San Diego, Ca : College Hill Press, 1986*
 - 25) Fletcher SG : *Maturation of the speech mechanism. Folia Phoniat. 25 : 161-172, 1973*
 - 26) Fletcher P, Garman M(Eds.) : *Language acquisition : Studies in first language develop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27) Gopnik A, Choi S : *Do linguistic differences lead to cognitive differences? : A cross-linguistic study of seman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First Language 10 : 199-215, 1990*
 - 28) Hahn K-JP : *The development of negations in one Korean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waii University, 1981*
 - 29) Hampson J, Nelson K : *The relation of maternal language to variation in rate and style of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 313-342, 1993*
 - 30) Hawkins S : *On the movement of motor control in speech : Evidence from studies of temporal coordination. In Speech and Language : Advances in basic research and practice, Vol II.(pp. 317-374). Academic Press, Inc, 1984*
 - 31) Hyams N :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theory of parameters. Dordrecht : Reidel, 1986*
 - 32) Kamhi A, Catts H : *Reading disabilities : A developmental language perspective. Boston, MA : College-Hill Press, 1989*
 - 33) Kent RD : *Tutorial. Anatomical and neuromuscular maturation of the speech mechanism : Evidence from acoustic studi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9 : 421-447, 1976*
 - 34) Kent RD : *Psychobiology of speech development : Coemergence of language and a movement system.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15 : 888-894, 1984*
 - 35) Kim Y : *The acquisition of Korean. In D.Slobin(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IV., in press*
 - 36) Lund NJ, Duchan JF : *Assessing children's language in naturalistic contexts(3rd Ed.). Englewood Cliffe, NJ : Prentice-Hall, inc., 1993*
 - 37) Nelson K :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 : No.149, 1973*
 - 38) Nowakowski RS : *Basic concepts of C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8 : 568-595, 1987*
 - 39) Pae S : *Early vocabulary in Korean : Are nouns easier to learn than ver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U.S.A., 1993*
 - 40) Piaget J :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 Basic.(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7), 1954*

- 41) Pinker S : *Language learn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1984
- 42) Radford A : *Syntactic theory and the acquisition of English syntax*. Oxford : Basil Blackwell, 1990
- 43) Rice ML, Schiefelbusch RL(Eds.) : *The Teachability of Language*. Baltimore :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1989
- 44) Robbins J, Klee T : *Clinical assessment of oropharyngeal motor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 271-277, 1987
- 45) Schieffelin B, Ochs E(Eds) : *Language socialization across cultur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46) Spreen O, Tupper D, Risser A, Tuokko H, Edgell D : *Huma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47) Tomasello M, Farrar J :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 1454-1463, 1986
- 48) Vygotsky LS :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and Tran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49) Wakefield J, Wilcox J : *Brain matura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 A theoretical model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ceedings of the 19th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Vol 2, pp 643-654, 1995
- 50) Wexler K, Culicover P : *Formal principles of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80